

1400년 백제 석탑과 바람개비길서 인생샷을~

서울서 KTX로 1시간 10분이면 도착하는 전북 익산은 미륵사지석탑, 왕궁리 등 많은 백제 유적으로 유명한 고도(古都)다. 하지만 이곳은 그저 옛 역사의 자취만 있는 곳이 아니다. 시골길을 오색 바람개비로 장식한 성당마을 바람개비길 같은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able, SNS에 올려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나 소품)한 명소도 품은 매력적인 고장이다.



너른 절터 위에 우뚝 선 자태가 매력인 미륵사지의 국보 11호 미륵사지석탑(앞쪽)과 고증을 거쳐 1992년 복원한 동원의 9층석탑. 서구 고딕양식의 종탑과 전면부, 목조한옥 양식의 측면과 지붕이 어우러져 독특한 조화를 이룬 화산 나바위 성당. 익산역 앞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의 독특한 가게들 중 정기적으로 DJ가 음악을 들려주는 '이리블루스'(왼쪽 사진부터).



익산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국관광공사

미륵사지, 화려했던 백제의 영화 용안생태습지, 67만㎡ 압도적 풍광 문화예술거리, 이색 골목투어로 막

● '웅장하면서 단아'...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미륵사는 30대 무왕(600~641년) 때 창건한 백제 최대 사찰이다. 높이 14.5m, 폭 12.5m인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은 현존 석탑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다. 2001년부터 20여 년간 보수를 거쳐 지난해부터 공개됐다. 절터 동쪽의 구층 석탑은 발견 당시 완전히 무너져 있던 것을 고증을 통해 1992년 복원했다. 미륵산을 배경으로 너른 절터 위에 서 있는 두 탑은 웅장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을 지녔다. 화창한 낮에도 멋지지만 아침나절이나 비가 살짝 내리는 날이면 정취가 더 남다르다고 한다.

이곳 국립익산박물관은 땅에 엮드린

듯 건물이 야트막하고 전시실을 지하에 배치한 것이 특이하다. 미륵사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1월 유적발착형으로 증축했다. 상설전시실에 국보와 보물 11점 등 3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왕궁리유적은 미륵사지와 함께 최대 규모의 백제유적으로 국보 289호인 왕궁리오층석탑이 있다. 제법 넓지만 U자형 수로와 백제시대 화장실 등 색다른 볼거리 덕분에 지루하지 않다.

● '떠오르는 인생샷 명소' 바람개비길과 용안생태습지공원

성당면은 금강 아래 자리잡은 50가구 남짓한 포구마을이다. 이곳 강변 오솔길은 길가에 색색의 바람개비가 5km 넘게 이어지는 장관으로 유명하다. 자동차보다 마을에서 자전거를 빌리거나 한가로운 시골 분위기를 느끼며 걷는 것을 추천한다.

바람개비길이 끝날 즈음엔 왼쪽으로 광활한 습지가 등장한다. 67만㎡에 달하는 용안생태습지공원이다. 시원스런

풍광이 돋보이는데 마을 이름의 영문조형물이 포토 포인트다.

오후면 공개나루는 서해낙조 5선에 꼽히는 명소다. 바다나 산이 아닌 강가 일몰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 '김대건 성인의 발자취' 화산 나바위 성당과 마애삼존불

망성면 화산에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성지가 있다.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성인이 사제 서품을 받고 돌아와 전도를 시작한 곳을 기념한 나바위 성당이다. 1906년 한옥 목조건물로 시작했지만 1916년까지 증축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한-양 절충식 건물이 됐다. 정면은 고딕양식의 3층 종탑과 아치형 출입구인데 지붕과 벽은 목조한옥 형태다. 성당 뒤편의 바위절벽에는 오랜 풍파의 흔적이 느껴지는 마애삼존불이 있다. 언제 새겨졌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당 건립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천주교 성지 속 마애삼존불이 백여 년 넘는 세월 동안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 '즐겁게 놀자' 익산교도소세트장과 문화 예술의 거리

익산교도소세트장은 폐교를 활용한 촬영용 교도소 세트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비롯해 3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이곳에서 찍었다. 촬영이 있거나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익산역 맞은편 문화예술의 거리는 일제강점기 때 '작은 명동'으로 불리던 사카에조(榮町)라는 변화가였다. 익산시가 낡고 버려진 상점을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빌려주면서 새로운 명소가 됐다. 500m 정도로 그리 길지 않지만, 골목 구석구석에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다. 익산근대역사관은 1922년 문을 연 삼산의원 건물을 103개로 해체해서 옮긴 뒤 다시 조립해 세웠다. 50년 넘게 영업을 하는 터줏대감 산생반점은 명물 된장짜장으로 유명하다.

익산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익산 성당포구마을 바람개비길

산악호텔 허용...관광산업 회생위해 규제 빗장 풀다

도시민박업 내외국인 이용 허용 국내여행 촉진·안전관광 캠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분야의 규제 빗장을 과감

히 풀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산업 규제 혁신안과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나온 규제 혁신안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산악호텔 허용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 개발이 제한됐던 산악지역에 스

키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기존 외국인 대상에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업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다. 호텔업은 세부업종을 통합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던 용적률 제한도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여행업은 소규모 자본의 창업에 장벽으로 작용하던 자본

금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었다.

한편, 이러한 규제 철폐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케이 방역'을 핵심 키워드로 안전여행을 위한 방역 실천수칙과 함께 관광지 예약제, 인원제한 등을 추진한다.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여행주간을 한달로 확대하고 할인혜택의 전용교통 이용권과 온라인 숙박할인쿠폰 100만 개를 지원한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p>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번개</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싸늘</p>	<p>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쾌청</p>	<p>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진눈개비</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여우비</p>	<p>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먹구름</p>
<p>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오늘은 재실일이다. 재실일에는 인간관계나 명예에 관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자존심으로 인한 마찰이 해 상가에서의 음식을 조심하라.</p>	<p>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도화일이며 소피에게는 인수이다. 도화일에 차서 강해지면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자신 위주가 된다. 아내가 힘들어한다.</p>	<p>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때마침 때마침 자제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날이다.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일거리를 이루기 위해 출사하는 날이다. 힘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된 작전을 수행하는 날이다.</p>	<p>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일 수 있다. 유해는 왕한 기운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일단 본인만 행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육하고 일어나는 것이다.</p>	<p>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재실일이다. 영리한 두뇌와 수완으로 실력자를 움직여 이익을 꾀하는 기운이다. 도움을 받으려면 말피에게 부탁하라.</p>	<p>현실에서 모든 것을 탐구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었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며 급진론에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오늘은 도화의 날이다. 비경도화이다. 친구나 주변인의 유혹으로 인한 재물손실이나 가정내 화가 있을 수 있다.</p>
<p>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파도</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쾌청</p>	<p>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비바람</p>	<p>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무지개</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가을비</p>	<p>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맑음</p>
<p>감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통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오늘은 장성일이다. 장성이 장성을 만났다. 비견이 겹쳐서 강해지면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자신 위주가 된다. 아내가 힘들어한다.</p>	<p>소가 등을 빌릴 언덕을 만나는 대결한 운으로 날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은 유해일이며 양피에게는 인성이다. 즉 서투른 계획과 관계가 있는 날이다. 육해일은 매사를 서두르는 날이다. 꼼꼼히 살펴라.</p>	<p>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기장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오늘은 재실일이며 원수이며에게는 관살이다. 관살은 직업문제이다. 직장이나 자식으로 인하여 손재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p>	<p>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 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피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특히 연상의 이성에게 끌리는 날이다.</p>	<p>웅담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기장동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오늘은 장성일이며 개피에게는 인수이다. 개개가 장성을 만났다. 학업 및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며, 재능이 빛을 보는 날이다.</p>	<p>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유해일이며 돼지에게는 재성이다. 지살인 돼지끼리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형상인데 유해할인 말이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이다.</p>

날씨와 생활 27일(수)

서울	0/0	인천	0/0	수원	0/0
13 24	☀	14 20	☀	13 23	☀
춘천	20/0	강릉	0/0	청주	20/0
13 24	☁☀	15 23	☀	15 25	☁☀
대전	60/0	전주	60/0	광주	20/0
15 25	☁☀	15 25	☁☀	15 26	☁☀
대구	20/0	울산	0/0	부산	0/0
16 27	☁☀	16 25	☀	17 24	☀
창원	0/0	제주	2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5 26	☀	17 22	☁☀	최저 최고	최고기온 C

☀ 해돋이 05:15 해질 19:44 🌙 달돋음 08:51 달질 23:52

산 날씨	
북한산	11/25
설악산	14/22
오대산	12/24
속리산	13/24
계룡산	13/25
내장산	14/24
무등산	15/26
주왕산	13/26
지리산	15/26
한라산	16/23
바다 날씨	
인천송도	14/20
제주도	13/22
경포대	15/23
속초	13/22
대전	13/24
안면도 꽃지	13/24
변산반도	15/22
거문도	14/24
해운대	17/24
제주도	17/22
미세먼지	
서울	33
부산	28
대구	34
인천	28
광주	31
보통	대전
보통	울산
보통	경기
보통	강원
보통	충북
보통	45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337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훈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사모초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민
경제산업부장 양영호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5월 27일(수) 음력: 4월 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